

# 소부장 소재 국산화 기술자립에 주가 ↑

동진썬미켄, 이달에만 61% 상승  
램테크놀로지도 20% 넘게 올라  
소재 국산화 성공, 주가상승 반영

소부장 2.0 등 정부 정책 기대감  
성장주, 중장기적 탄력 받을 듯

〈주요 반도체 소재 기업 주가 상승률〉

종목	5.29	6.25	상승률
동진썬미켄	1만7900	2만8450	58.93
이엔에프 테크놀로지	2만7600	3만6650	32.78
SK 머티리얼즈	16만2100	19만1500	18.13
솔브레인 홀딩스	8만700	9만4200	16.72
램테크놀로지	6330	7730	15.79
후성	7990	8370	4.75

단위: 원, % 한국거래소

지난해 일본의 수출규제에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기술자립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관련 종목이 탄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이른바 '소부장 2.0 전략'이 거론되며 중장기 주가 흐름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산 소재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한 기업들이 소부장 업종의 수혜를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25일 코스닥 시장에서 반도체 장비 생산기업 동진썬미켄은 전일보다 7.56%(2000원) 오른 2만84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달 들어 58.93% 상승했다. 같은 기간 코스닥 상승률(5.13%)의 12배 수준이다. 반도체용 포토레지스트(PR)가 고성장 궤도 진입하며 안정적인 실적과 마진율 상승 구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이엔에프테크놀로지의 상승률도 눈에 띈다. 이엔에프테크놀로지는 이날 전일보다 2.66% 오른 3만6650원을 기록하며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 이달 들어서만 30%가 넘게 올랐다. 다른 반도체 소재 생산 기업인 SK머티리얼즈와 솔브레인홀딩스도 이달 상승률이 각각 18.13%, 16.72%에 달한다.

해당 기업들은 소재 국산화에 성공하며 생산 능력이 확대되고 동시에 제품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동진썬미켄은 올해 초 불화아르곤 PR 공장 증설을 확정된 후 극외선(EUV)용 PR을 개발 중이다. 마찬가지로 SK머티리얼즈도 불화아르곤 PR 공장을 증설하고 있다. 이엔에프테크놀로지는 올해 초부터 미국 오스틴에 생산 시설을 착공해 삼성전자 오스틴 반도체 공장(SAS)과 함께 현지 해외 업체까지 고객사 확보가 기대된다는 분석이 나오며, 솔브레인홀딩스는 올해 액체 불화수소 공장을 조기 완공했다.

기술자립과 소재 국산화가 주가 상승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영산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과거와 같이 반도체 업황의 불확실성

이 커졌을 때 단순히 안정적인 실적을 구사하는 소재 업종을 선호하는 시기는 지났다"며 "올해 퀘스트를 진행하고 하반기부터 매출 인식이 본격화될 전반적인 주요 소재 업체들에 주목하라"고 했다. 그는 해당 업체들로 SK머티리얼즈, 솔브레인홀딩스와 함께 이엔에프테크놀로지와 후성 등을 꼽았다.

정책적 기대감도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소재·부품·장비산업 당정 점검회의에서 일본의 추가 무역보복에 대비해 소재·부품·장비 산업 강화 시2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소부장 2.0 전략은 기술 자립과 연구·개발(R&D)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장기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각 부처에 ▲특정 국가 의존도 완화를 위한 기술 자립, 첨단산업 육성 ▲연구·개발(R&D) 고도화 ▲중소기업 육성과 인력양성 ▲중소기업 지원체제 마련 등을 주문했다.

정부의 경제 정책 과제로 대표되는 만큼 정부 투자와 함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소부장 국산화 추세는 단기 이슈가 아닌 중장기 전략적 변화"라며 "관련 밸류체인 기업들에 주목하라"고 권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주축 산업인 반도체 소부장 강화 전략은 단기 테마가 아니라 장기적인 국가 전략의 중요한 축이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젠 미래가치가 높은 실질적인 성장주가 중장기적으로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개인투자자들을 필두로 한 막대한 유동성의 힘으로 상승해온 터라 단기과열에 따른 가격 부담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이다.

/송태화 기자 alvin@metroseoul.co.kr

# 하반기 정비사업, 서울 흑석·부산 주목

흑석 11구역 건축심의 최종 통과  
9구역은 새 시공사 선정 추진

부산 남구 대연8, 문현1구역 등  
8000억 규모 대형 재개발 예정

상반기 강남 반포3주구와 강북 한남3구역 등 서울 내 대규모 도시정비사업 수주를 마무리한 국내 대형건설사의 관심이 하반기에는 흑석 재개발 구역과 부산에 집중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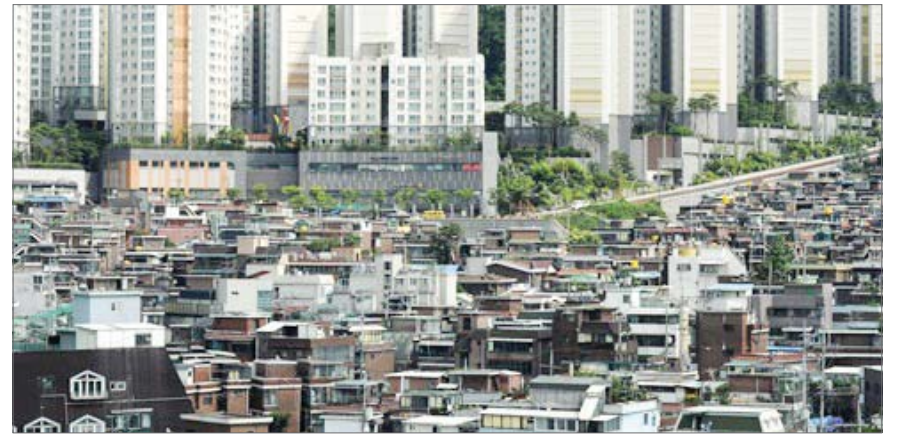
2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에는 서울 동작구 흑석9·11구역, 부산 문현1·우동1구역 등 전국에서 크고 작은 정비사업장의 시공사 선정이 예정됐다.

흑석11구역은 재개발 조합의 건축심의가 최종 통과됐다. 이에 따라 조합은 사업시행인가와 시공사 선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흑석11구역을 도시·건축 혁신방안 시범사업지로 선정했다. 민간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일반적인 정비사업과는 달리 서울시가 정비계획 지침을 직접 제시해 사업이 진행된다는 점이 특이사항이다.

이번 건축심의를 통과한 계획안을 통해 흑석11구역에는 지하 5층~지상 16층, 25개동, 건폐율 26.65%, 용적률 200.98%, 총 1509가구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선다. 착공은 2022년 10월, 준공은 2025년 4월로 예정됐다.

흑석9구역에서는 새 시공사 선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흑석9구역은 기존 시공사인 롯데건설과 시공계약을 해지했으나 이달 말까지 재협상 기회를 열었다. 롯데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시공사 선정작업에 착수해 늦어도 11월에는 최종 시공사를 뽑을 계획이다. 흑석



서울 흑석뉴타운 전경.

/연합뉴스

9구역은 지난해 10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상태다.

흑석9구역 재개발은 흑석동 90일대(9만4000㎡)를 재개발해 1538가구를 짓는 정비사업으로 공사비는 4400억원 규모다. 조합은 롯데건설이 제안한 '2811대안설계안'(28층 11개동)이 서울시의 인·허가(도시계획 '2030서울플랜'에 따라 흑석9구역 등 2종 일반주거 지역의 최고 층수는 25층으로 제한)를 받아내지 못했다는 사유로 지난달 14일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장과 이사 5명, 감사 2명에 대한 해임을 결정한 바 있다.

최근 반포3주구와 한남3주구 등 서울 내 정비사업을 마무리한 건설사들의 눈길은 부산으로 쏠리고 있다. 현재 부산의 도시정비사업장은 재건축 64곳, 재개발 105곳 등 총 170여곳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남구 대연8구역, 문현1구역 재개발사업과 해운대구 우동1구역 삼호가든 재건축사업 등이 가장 큰 규모로 손꼽힌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서울은 한남3구역 이후 대규모 정비사업장 물량이 현재 소진된 상태"라며 "대형건설사들은 하반기 정비사업 수주 예정지가 많은 부산에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연우 기자 yw964@

가장 먼저 관심을 끄는 곳은 남구 문현1구역이다. 부산 남구 문현동 788-1 일원에 지하 4층~지상 65층, 7개동, 2232가구를 짓는 재개발 사업이다. 공사비만도 8000억원 규모를 훌쩍 뛰어넘을 전망이다. 부산 국제금융센터(BI FC)와 인접한 데다 평지, 역세권이라는 입지적 조건을 갖춰 현재 롯데건설, GS건설, 대우건설, SK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이 입찰에 참여할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이어서 남구 대연8구역은 부산 남구 대연동 일대 단독주택 밀집지역을 개발하는 대형 사업이다. 이곳 역시 공사비 8000억원 규모로 33층, 33개동, 3540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지을 예정이다. 올해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며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해운대구에서는 센텀시티 권역 재건축 시장의 최대어로 꼽히는 우동1구역 삼호가든(기존 11개동, 1076가구)이 13개동, 1476가구 규모로 재건축할 예정이다. 이곳은 해운대에서 상징적인 부촌으로 꼽혀 삼성물산, 대림산업, 현대건설, GS건설, 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등 건설사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 ‘광명 시흥테크노밸리’ 개발사업 본격화

경기도, 개발 실시계획 승인, 고시  
판교테크노밸리 보다 3배 이상 커

‘광명시흥테크노밸리’ 개발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광명 등 인근 지역의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초대형 테크노밸리로 주목받고 있어서다. 경기도는 지난달 20일 광명시흥테크노밸리 내 광명복합유통단지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실시계획을 승인, 고시했다. 광명시 가학동 일원 29만7237㎡ 부지에 오는 2024년까지 생활용품, 화웨이 등의 도·소매 업체가 입주하는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첨단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 광명학은공공주택지구 등과 함께 광명시흥테크노밸리를 구성하게 된다.

광명시흥테크노밸리의 총 면적은 245만여㎡에 달한다. 판교테크노밸리(66만여㎡) 대비 3배 이상 큰 규모다. 판교신도시가 테크노밸리를 기반으로 경기도의 대표 자족도시 중 하나로 성장한 것을 고려할 때 그보다 큰 규모의 테크노밸리를 배후에 두게 될 광명, 시흥 지역이 주목받고 있다. 풍부한 일차리를 바탕으로 서울의 위성도시를 넘



광명 푸르지오 포레나 조감도.

어 경제 자족도시로 발돋움하기 때문. 실제 광명시 도시재생공에서도 광명시흥테크노밸리가 조성될 경우 2조 2577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4만1180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광명시흥테크노밸리는 일대 지역을 자족도시로 한 번에 탈바꿈시킬 수 있을 만큼 호재여서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특히 광명의 경우 이미 경기도에서도 손꼽힐 만큼 뜨거운 시장 열기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광명 지역에서 신규 단

지가 공급된다. 대우건설과 한화건설이 광명뉴타운 14구역, 광명동 42-42번지 일원에 26일 사이버 견본주택을 열고 '광명 푸르지오 포레나' 1187가구 중 32~84㎡ 397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도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도 가깝고 KTX광명역도 이용 가능하다. 이외에도 광명뉴타운 2구역에서는 대우건설·롯데건설·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3344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며, 10구역에서는 호반건설이 1051가구를 공급한다. 일반분양분은 각각 730가구, 487가구다.

/이규성 기자 peace@

## 한국투자증권 SK바이오팜 청약고객 이벤트

한국투자증권은 SK바이오팜 청약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현금 8만원을 지급하는 금융상품 가입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벤트는 23~24일 진행된 SK바이오팜 공모주에 청약한 한국투자증권 영업점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청약환불일인 26일부터 7월 10일까지 한국투자증권에서 판매하는 펀드·랩어

카운트·주가연계증권(ELS)·채권·환매조건부채권(RP)에 가입하면 금액에 따라 현금을 지급한다.

펀드·랩·ELS 가입 고객에게는 가입금액 1000만원당 1만원씩 최대 5만원을 현금으로 제공한다. 채권과 기간물 RP는 2000만원 이상 가입시 1만원, 5000만원 이상 가입시 2만원, 1억원 이상 가입시 3만원을 준다. /송태화 기자